

수필이 있는 풍경 사진



권영주
히트 스캔 심장내과 원장
순천향의대 명예교수

만년설

북구 노르웨이의 산악지역에는 흰 눈이 봉우리마다 아름답게 쌓여있다. 그 주위경관과 함께 처음 경험하는 모두에게 환호성이 터져 나오도록 마음이 기쁘고 하늘위로 날아갈 듯하다. 만년설이 녹아내려 빙하와 호수를 만들고 빙하의 침식작용으로 피오르드라는 계곡의 호수를 만들었다고 한다.

사람이 살 수 있는 세상의 끝 쪽이라고 이 척박한 대지위에 아름답고 경이로운 자연풍경을 배경으로 바이킹이라는 해적의 한무리라는 오명을 뒤로 잡고 이제는 잘사는 나라.

친환경적인 환경 속에서 삶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역경의 자연환경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인간의 의지를 찾아볼 수 있다.

의식주를 해결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면서 인간의 가치도덕, 진리의 공존, 그리고 예술과 인간의 존귀함을 역경의 자연환경 속에서 얻어내는 위대함을 함께 느껴보자.









교스포젠(Kjosfossen)폭포

노르웨이 산악 프롬에서 산악관광 열차를 타고 중간역쯤 가면 만년설이 녹아내린 호수에서 흘러 나오는 웅장한 폭포를 잠시 정차하는 곳에서 볼 수 있다.

모두들 열차에서 내려 서로들 앞다투어가면서 사진도 찍고 폭포와 함께 하고 싶은 심정으로 웅장하고 거대한 물기둥에 정신이 나간 것처럼 허둥댄다.

이 산골에 거대한 폭포로서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은 자연의 혜택이랄까.

프롬열차(Flamasbana)는 척박하고 험준한 지역의 교통을 위해 오래전에 건설된 열차가 이제는 관광산악등산 열차로 왕복하고 있으며 놀웨이 산골의 풍경을 음미할 수 있다.

오래전 마땅한 건설장비도 없이 오로지 인간의 의지로서 철도를 건설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이 솟아오른다.

자연 그대로의 모든 것을 간직하고 삶을 영위하는 노르웨이인들의 마음도 함께 가져보고 싶다.